

인도 대통령 ISO/COPOLCO 전원회의 개막



31차 ISO/COPOLCO 전원회의 개최식에 참석한 Shrimati Pratibha Devisingh Patil 인도 대통령(좌측)과 Shri Sharad Pawar 인도 농업소비자부 장관(우측)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은 2009년 5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31차 ISO 소비자 정책 위원회(COPOLCO) 전원회의 개막연설에서 “소비자여, 깨어나십시오!”라고 외쳤다.

인도 대통령은 인도에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된 미디어 캠페인을 소개하였다. 30개국의 소비자단체나 공공 당국, 기업, 국가 표준기구에서 참가한 100여 명을 상대로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도 대통령은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세계에서 생활하지만 점차 복잡해지는 신제품에 대해 상세하거나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소비자의 취약점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표준은 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표준을 개발하는 작업에 소비자 단체의 뜻깊은 참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준의 이행을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은 COPOLCO가 영감을 주거나 개발한 표준과 지침에 관심을 표명하며 각국 정부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배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인도의 접근방식에서 표준이 차지하는 중요성도

역설하였다. 대통령은 “소비자의 수요를 촉진하고 제도나 시장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는 일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영역에 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을 보장하는 표준 품질과 서비스에 부합하는 제품이 필요하다. 따라서 건전한 기업의 접근방식뿐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이라는 광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세계적인 국경간 제품 제조를 언급하며 “각국은 소비자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한 표준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조된 접근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상호 연계된 세계에서는 해외무역을 증진하고 신속한 물품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간에 표준 상호인정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통된 허용 표준은 불필요한 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수출업자들이 표준 상품을 해외에 공급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OLCO의 Dana Kissinger-Matray 간사는 ISO 총재의 연설을 대독하며 회의를 개최한 인도 ISO 회원기관 인도표준국(BIS)에 사의를 표하였다. 간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잠재 소비자가 5억 명이 넘는 국가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최국 인도는 상호접속 세계에 가능한 추세와 발전을 대표한다.”

“오늘날, 서비스는 중요한 경제 성장원으로 인도 생산량을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는 표준이 가치를 부가가치를 감안하여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끝으로 Kissinger-Matray는 “국제표준은 각국 및 업계의 기술 호환성을 보장하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외국에서 진행된 공정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국제표준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국제무역을 촉진 한다”고 전했다.

(ISO FOCUS 번역)